

여야, 지방선거 사활...尹정부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성한

6·1 지방선거 D-30

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전국단위 선거
검수완박·인사청문 정국 최대 변수로
민주, 지방선거 승리 대선 패배 설욕
국힘, 국정안정론 내세워 국민에 호소
수도권 승부처...지지층 결집에 총력

여야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0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정치적 무게에 대한 인식 속에 대선 패배 설욕을 베투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까지 바라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함께 선출한다.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자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한 총재를 뒤로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발의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 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기획위원회 심의결 제 202104-중-11329

건강관리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지원센터

문의 : 032-890-8700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로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 진영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9 대선 승리 덕분에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은 터다.

모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상대적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집권 초기 대형 외교 이벤트가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초박빙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집토끼 지키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핵심 지지

층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진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한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

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들 '빅 매치'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는 일약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3면에 관련기사



실의 마스크 착용 해제 앞두고 북적이는 인사동

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남스/김민준

전국 지자체 '골목상권 살리기' 안간힘

전국 지자체들이 일상회복으로 돌아서자 골목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들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꺼내는 대표적 지원책은 캐시백을 포함한 가격할인 혜택이다.

부산시는 10% 캐시백 기능이 있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반으로 '골목상권 특화 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는 시범 지역 4곳에서 사용하면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을 추가해 무려 17%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 이전시는 이달 한 달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인당 결제액의 25%,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할인혜택에 배달용 이륜차 대여 온라인을 입점·기준점도 시설개선 지원
지방세·임대료 감감...유급병가제 시행

캐시백하는 소비지원금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빌려주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수요조사를 통해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10명에게 전기 이륜차와 이륜차 종합보험·배달통·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점포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유통환경 변화에 자영업자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남도는 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알데일 상담을 통해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소포몰 입점을 돕는 방식이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사업도 활발하다.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0명에게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점포 세 단장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옥외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소화·방범 설비 등 시설 개선에 쓰인다. 강원 철원군은 낡은 사업장 내·외부 설비 등을 개선하는 업체에 각각 최대 1천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외식·숙박·문화·체육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이 참여 대상이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의 세금·임대

료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일원 진료료를 받으면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모두 88만여원을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고 공주시는 한월하는 시민에게 1만 원권 지역상품권을 준다. 제주도는 관광업체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울산시는 경영난에도 적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분 사회보험료(50만원)를 지원한다. 전국 총합/김민준기자 kym@jeonmae.co.kr

장 비서실장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이론뿐 아니라 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국내외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비롯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에서도 안보시정립 역할을 맡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성한 실장을 필두로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비서관이 설치되고, 2차장 산하엔 국방·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이 있게 된다.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선 1차장이 국방, 2차장이 외교를 담당했으나 새 대통령실에선 1차장이 외교, 2차장이 국방 업무를 맡는다.

장 비서실장은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며 "슬림한 대통령실"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거처와 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이 있게 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2022 양구곰취축제

2022.5.5(목)~8(일), 4일간

양구서천레포츠공원 일원
온·오프라인축제

www.yg-gc-wildgreens-festa.com

주최 및 주관 (재)양구문화재단

@officialygcf @yangguculture 문의전화 033-482-9174

단신브리핑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 제작·배포

경기 수원시가 인권 웹툰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이 책자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의 과제 등을 소개한다. 줄거리는 시 인권담당관과 단호리 작가가 기획회의를 거쳐 설정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문제다.

지난해 4월 첫 화 ‘코로나19 같은 위기 다른 세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상한 주민? 이웃 주민, 이주민!., 장애인, 낯설어 보여도 ‘우리’, 노인혐오, 공감하지나요? 등 4편을 제작했다. 올해는 ‘누노노 시대,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이슈와 미래 변화’를 주제로 12월까지 인권웹툰 4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권웹툰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인 권교육’ 게시판과 수원시 SNS 채널 등에 게시하고, 인권 관련기관·교육단체 등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수원/ 박선식기자 spark@jeonmae.co.kr

체류형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강원 춘천시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류형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5명 이하로 구성된 내·외국인 관광객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을 지급한다. 조건은 지정은 유류관광지(별도 첨부) 2개소 이상 방문, 숙박할 잠자리에 의해 등록 및 신고된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숙박(춘천 내 숙박시설), SNS 공개 게시물에 춘천여행후기 홍보, 대표 1인이 네이버 폼 통해 인센티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 후 대표 1인이 네이버폼(<https://naver.me/xh10an4U>)을 통해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관광지별 이용 일자, 일련번호, 이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권·탑승권 또는 영수증이다.

춘천 여행 후기 홍보 인장기준은 공개된 SNS에 춘천 여행 후기를 올린 춘천 관광을 알리야 한다. 특히 해시태그, 춘천여행, 춘천미션투어 작성은 필수이며 증빙은 춘천여행후기를 올린 SNS 게시물의 URL 일 려이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경로식당 순차적 운영 재개

충북 청주시가 노년복지시설 재개방에 맞춰 경로식당을 2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체식품 및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식사에 대해 경로식당 운영 대책회의를 거쳐 3차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식당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일 9일 신남종합사회복지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현 양노인복지센터, 16일 청주YMCA, 23일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3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은 코로나 유행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만큼 방역수칙 철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 그동안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영양 불균형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경로식당을 다시 운영하게 돼 매우 안심된다”며 “경로식당에서 정상스레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드시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23개 시군 함께 지원 방향 제시…위기상황 해소·맞춤서비스 제공
촉촉한 발굴체계 구축·마음안심서비스 앱·우리동네지킴이·희망톡 개설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 경북’ 만들기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신속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적 지원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촉촉한 발굴체계 구축, 마음안심 서비스 앱 보급운영,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단 운영,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발굴체계 구축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사각지대 발굴 민간 신고 조직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조직과 민간기관의 협업을 통해 365일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마음안심 서비스앱을 23개 전 시군에 즉시 보급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혼자 사는 위가대응 취약가구 대해 실시간 안전 확인과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위가대응 취약 1인 가구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지정시간(최소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하고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구조문자를 자동으 전송해 빠른 위가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참여자로 이뤄진 공익형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현장방문을 통해 숨은 위가가구를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위기에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상황 조기 발견과 신속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단 규모는 개소당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오는 7월부터 5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은 개소당 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발견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희망 톡(TALK)’을 시군별로 개설한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군 희망톡을 검색해 친구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를 통해 여러

운 이웃을 상시발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제보를 통해 복지서비스 관련정보도 제공된다.

한편 원룸 밀집지역, 역터미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전 시군에서 일제히 운영해 주민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발굴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의 지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엔데믹 시대 사각지대 전면해소로 일상회복을 넘어선 도민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경기 성남시는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해 2일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전경.

<전경/가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탈바꿈…오늘 개장

사업비 2762억 투입 4만6617㎡ 규모
이외공원장·비대분수·보행육교 등 설치

경기 성남시는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해 2일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1공단 부지는 수장구 신흥동 2457 일원 8만 4271㎡ 규모로 1974년 지방산업단지조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

행돼 15년간 빈 땅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시는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사업비 2762억원을 들여 4만6617㎡ 규모의 ‘제1공단 근린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에 야외 공연장, 소나 폭포, 보행 육교, 비대분수 등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졌다.

또 오는 11월에는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이 건립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전사동이 각각 들어서 문을 연다. 역사박물관은 1공단의 역사와

시민 애환, 도시개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기록과 유물자료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30년간 시민의 생활 터전이던 옛 제1공단을 시민들에게 주려고 공원을 조성했다”면서 “역사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원 도심 대표 녹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경남도, 전국 최초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2일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총 발행액은 32억5000만원으로 5월에 7억 5000만원의 우선 발행하고 매달 일정 금액씩 발행 예정이다.

상품권은 도가 지정한 초록매장에서 소비자가 1회용기 대신 텀블러 등의 다회용품을 가져와서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고객별 월 최대 10만원까지 20% 선 할인된 금액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하다.

가령 텀블러를 소지한 고객이 커피를 구매할 때 경남도와 초록매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다야커피점과 메가MGC커피점의 경우 각각 200원과 100원의 할인혜택과 함께 추가로 20% 선 할인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471개소가 초록매장으로 등록돼 있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경남환경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초록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 김원준기자 kimhj@jeonmae.co.kr

동서식품

커피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카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카누라면 누가 마셔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인수위 “저출산 완화 보다 기획·적응 더 중요”

“미래 변화 예측 선제적 조정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저출산 완화에서 기획·적응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 TF’가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활동 보고에서 조영태 기획위원은 “지금까진 (저출산) 완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제 전략의 영역인 기획과 적응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2년까지 일하는 인구(25~59세)가 약 12% 감소하고, 2030년 이후 신생아의 5%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산하며 2035년에는 잠정 가능 남성 수 50%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전망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 삶의 질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는 것”이라며 “변화된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나 사회 정책을 기획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적으로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전략 영역으로 격차의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 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을 꼽았다.

또 3대 행정 기반으로 인구정책기본법 등 법률 기반과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가버넌스 기반, 각 전문 분야와 인구통계와의 활발한 융합 연구인 연구 기반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 즉 완화정책을 이전 비중을 줄인다는 대립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것대로 완화시키지만 시간을 벌고 충격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니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놓쳐왔던 것을 이전 차원을 달리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인구정책 기능을 담당할 부처 간 업무 조정에도 대해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 정책 대상이 돼 있는 구체적 사업들은 없앨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논의를 하며 간다는 게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민주 ‘퍼스트펄크인 대회’ 열어 청년·여성 후보 독려

윤호중 “38세 출마 청년 기개 동력”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일 청년·여성 후보들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펄크인 필승결의대회’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일부 중진 의원들, 청년·여성 후보 50여 명이 참석했다. ‘퍼스트펄크인’은 무리에서 차가운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펄크를 뜻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다선 의원들은 각자 첫 출마 경험을 살기하면서 청년 후보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4선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38세에 첫 출마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기성정치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청년으로서 기개를 잃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대선 패배 후 비대위 구성부터 비쳤고 이번 지방선거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 여성을 대거 공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여러분은 우리 당이 색인을 향해 나아간 결심과 각오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저도 34살 때 서울시 의원에 처음 출마했다. 5번 (선거에) 도전해서 4번 떨어지고 1번 됐다”고 말했다.

첫출마지원단장인 조순의 장경태 의원은 “저도 7번 공직선거를 했는데 4번 다 떨어졌다”고 말한 뒤 “첫 출마도 중요하지만 청년 재선·3선 의원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육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단장인 권자용 비대위원은 자신은 이번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 뒤 “지금은 일개 지방의원 후보자가 말하는 것이라 여겨질지 몰라도 5. 6. 7년 뒤에는 여러분이 단진 그 구조가 민주당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민주, 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내일 마포표

국힘 “입법 독주” 반발…여론전 이어가

한 후보자 이어 16명 인사청문회

지방권력 탈환 위한 대치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 조율이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 대치는 이번 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한 달 남게된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5월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분회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육설과 사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측 팔라바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3일 다시 분회회가 개최된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지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가.

민주당은 1년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논란을 사기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검수완박’ 정국서 한껏 달아오른 여야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계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시작되는 윤석열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16명의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민주당은 “19명 모두 퇴장권”이라며 특히 ‘한·호·철’(한동훈·정호영·김인철)의 낙마

를 끌어낼 만한 고강도 검증을 베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낙인을 찍는다”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는 점도 대치 국면을 심화하는 요소다. 여야는 3·9 대선 일정으로 지방선거 대비가 늦어지면서 최근여야 공역단체장의 대선표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권력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확인된 국회에서의 일세를 상쇄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0.73%포인트”라는 대선 패배의 설움을 베풀고 있다. 2018년 싸움하느라 피했던 지방 권력을 이번엔 내주게 되면 2024년 총선도 한층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당선인의 잇따른 지역 순회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5월 정국에서 어느 한쪽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과정에 무리수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측의 합의안 과거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형소법까지 처리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집단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서 “비정당적인 검찰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고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

라면 4월 30일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야 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으로 추진까지 한 합의를 파기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국회와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철저하게 편파와 흡수로 압록했다”며 “국회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다수가 기복된 의도대로만 가는 입법 독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토론회 연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퍼켓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사청문회 민주 “송곳검증” vs 국힘 “흠집내기”

민주, 한덕수·정호영·김인철 화력 집중

국힘 “신상탈기·망신주기식 허용안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중시대로 진행된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내주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청과 반청’의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외침에 같은 날 여러 곳에서 ‘전장’이 펼쳐지는 경치가시 청문회 개최로 인해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첫 타이프

를 끊는다. 한 후보자는 애초 지난달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여야가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 여야 재협상을 통해 일정이 재조정됐다.

3일에는 한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보건의복지부)·이상민(행정안전부)·이창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까지 4명이 검증대에 오른다.

4일에는 한동훈(법무부)·이종섭(국방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어린이날 휴일을 거쳐 6일엔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과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내주에는 9일 이창와 산업통상자원부,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관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베풀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 가려 각 후보자의 의혹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문회에서 확실한 한 방법을 날라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1기 내각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철저한 방어막을 칠 태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 3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낙마를 위한 신상탈기·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래된 문재인 정부의 장관단원 사태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합조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베일 벗는다…“공약 다 담아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별한 110개 국정과제가 3일 베일을 벗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책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철통 보안을 유지해왔던 인수위가 최근 일부 국정과제 발표 과정에서 공약 반복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 보상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조속히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심교언 TF 팀장은 물론 인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이 발표한 ‘파해지원금 차등지급’ 원칙이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지출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증폭하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을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때문에 110개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얼마나 담겼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공약 반복 논란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조속 추진 변함없어”
소상공인 지원·부동산 등 민생 전진배치…LTV 완화 등 포함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윤 당선인이 직접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공약의 정신을 다 담아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520개 실천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는 5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코로나 긴급 구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이 있다.

이 밖에 ‘사방 월급 200만 원’과 같은 큰 처우 개선책과 외국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관할 민간합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인 인수위가 내놓는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담겨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정과제로 정리해 새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지방시대

전국매일신문 자매지 www.jeonmae.co.kr

2022 05

Cover Story

김명선 충남도의회 제11대 회장

“실질적 정책으로 더 행복한 충남 건설”

※ 전국 유명서점 철찬 판매중 ※ 구입·구독 문의 1588-5762

“GTX-A 조기 착공, 수도권 균형발전 초석”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수도권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GTX 노선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GTX 노선을 차기 정부에서 정책의제 채택과 조기 착공을 위한 릴레이 챌린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화진(사진) 경기 여주시장을 만나 이에 대한 소신을 들어본다.

● 광주·이천·여주 GTX 노선을 여주시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수광선(2027 개통), 경강선 운영과 여주~원주선(2027년 개통) 연결로 GTX가 수서~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GTX는 시의 100년 대계 사업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 대도시의 교육·의료·일자리 등 광역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 해결, 새로운 관광산업의 길 모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 시 이산화탄소배출 1/5, 에너지소비량에 1/8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 장래 남북철도 및 중국대륙철도와 연결기반 마련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 시의 구체적인 선도 역할은

광주·이천·여주·원주시가 서로 단일 목표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 및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주시가 먼저 GTX 유치 TF팀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4개 시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무원 합업 환경을 구축해 4개 시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했다. 또 세미나·포럼 기획, 관계자 협의, 대선공약 반영 건의서 및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 등을 대표해 만들었으며 김시문 교수 등 철도전문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채 자문을 통한 GTX 여주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개발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여주·이천 사전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수서역 접속부 설치 건의, 국가철도공단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현성 제고, 국토부와 4개 시 토론회, 청와대·국회·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을 방문해 사업의 이해·설득에 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 반영, 대통령 국정과제 채택 건의 등도 현재 시가 앞장서 노력 중이다.



주택난 해소·교육·의료 등 광역인프라 공유·탄소중립 실현 등 기대
GTX 유치 TF팀 운영...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채택 건의 등 주력
서울 중심과 20~30분대 연결·전국 2시간대 가능 국토 중심 탈바꿈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GTX 유치 공약 이행을 위한 광주·이천·여주 3개시 공동포럼과 3개 시 시장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GTX 확충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정치권과 각계각층에 GTX 시 확충 필요성과 조기착공의 시급성을 알렸다.

● 현재까지 추진 성과는

4개 시, 민·관·정이 함께 노력한 끝에 이번 대통령 GTX 공약사항 중 D노선으로 반영됐다. 현재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며 큰 틀에서 방향을 잡으면 실제 사업성 여부 등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GTX-D 노선 대신 대통령 임기 내 완공 가능한 GTX-A노선의 연결을 인수위원회 등에 요구 중이다. 2028년 개통 예정인 GTX-A 삼성역, 2027년 완공 예정인 수서~광주선 및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을 활용한 해당 노선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상공적인 공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GTX 노선 채택시 완공 전까지의 효과가 있는지는

장래 이용 수요를 담보할 수 있어 여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오학을 연결하는 트램, 도시재생사업, 여주역세권 확장,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도시개발사업 등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시가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갈 것이다.

바뀌어 갈 것이다.

● GTX 연결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 공약은 GTX-D를 삼성역에서 수광선·경강선을 통해 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하는 안이다. 그러나 GTX-D는 김포~부천선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어 삼성~팔당까지 연결은 사전대당성조사, 철도망 반영, 예산통과, 예산확보 공사 등이 필요해 실제 착공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4개시는 GTX-A의 삼성역 연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2027년 수광선과 여주~원주선 완공시 삼성역에서 여주~원주선 GTX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소병훈,임종성), 원주(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이 GTX-A의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합리적 노선인 정부정책으로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원주시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사업 진행은

경강선은 최종적으로 인천의 송도와 강원도의 가평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해당노선 중 월관선과 여주~원주선이 현재 추진 중이며 월관선은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다. 또 현재 기술제안 입찰 중으로 오는 7월 4일 설계 및 시공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10개월간 실시설계 후 50개월 동안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기술제안에 강건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7월 중 1차인이나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GTX 노선·경강선 모두 완공시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시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고속철도(KTX),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도권전철, 화물열차까지 운행되는 철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철도가 여주의 중심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서울 중심과 20~30분대로 연결돼 수도권과 중심 지역으로 우뚝설 전망이다. 또한 전국이 2시간대로 이동 가능해져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국토 중심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여주 뉴스 브리핑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실시

영락 강화·유출사고 예방 마련

경기 여주시는 최근 직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강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인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연구자 공모

지방자치사·여성·문화예술인 등 3개 주제

경기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22년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구술채록 연구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3개 주제, 구술자 6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던 민선 1기 전 여주군수와 관계자의 구술채록을 담은 ‘여주의 지방자치사’를 선정했다.

두 번째 주제인 ‘여주의 여성’에서는 바느질 재료 상점을 운영을 운영하며 약 40년간 여주의 모습을 지켜본 여주시민과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주시민의 구술채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주제에서는 여주 지역 문화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증언할 전 여주문화원장과 작품세계에 스며든 여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족 공예가의 구술채록이 담긴다.

재단은 이러한 주제 연구 및 구술채록을 진행할 연구자 공모를 진행한다. 연구자는 구술채록 국문학, 기록학 등 관련 분야의 요건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 심사위원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선정된 연구자는 구술자의 생애 연구 및 구술채록과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을 통해 구술자의 삶 속에 담긴 잊혀진 여주의 모습을 발굴하고 기록할 계획이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사진 왼쪽부터 GTX 도입 광주·이천·여주 공동건의문 서명식, GTX 유치 공동포럼 개최, GTX-A와 수광선 연결 접속부 설치 위한 국토부·국회의원·지자체 관계자 토론회, 광주·이천·여주 GTX 유치 비전선포식.



<여주시 제공>

전국매일신문 캠페인 - 일상생활 속 환경을 살리는 습관

자연과 우리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요

일상생활 속 버려진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생물들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바다 먹거리로 돌아와 우리 식탁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일 우리의 식탁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2050년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캔, 유리, 페트 등 분리배출하기

에너지 절약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는 뽑아 사용 대기전력 차단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기념일 또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 뜻깊은 날 만들기

마이스 전문가 양성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마이스 산업 도약을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14시간의 교육과정은 마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SNS 마케팅, 온라인,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이스 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마이스 행사에 직접 참가하며 현장을 경험해보는 실무 교육도 포함된다. 이밖에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고 영어,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만 20세~39세 송파구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또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songpa.seoulwomanup.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spjob66@seoulwomanup.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17일 면접을 실시해 최종 교육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소식나누미 기자단’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23일까지 지역의 자원봉사 소식을 취재하고 전하는 ‘소식나누미 기자단’을 모집한다.

소식나누미 기자단은 자원봉사 수요처와 활동장소를 직접 방문해 취재하고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나 행사, 이슈, 미담사례 등을 전달한다.

지원자격은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로 취재 및 아이디어 회의를 위해 월 2회 이상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문서 편집과 SNS에 능통해야 한다.

신청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누리집) 공지사항에 있는 소식나누미 기자단 활동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26005331@gangseo.seoul.kr)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공향대로 501,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착공

서울 금천구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산2동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산2동은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 시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2019년 5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주차장은 독산동 1056-5, 2242.2㎡ 부지에 지상 5층을 공원을 재조성하고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105면이 조성된다.

청년 성장 프로그램 ‘다알라쑈’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무종력지도 도봉이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다알라쑈’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다알라쑈’은 강의, 플러마켓, 전시 등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22년 상반기 다알라쑈, 도봉이의 미니멀라이프는 5월 19일 심플라이프에 워크숍 타진현 대표의 미니멀라이프 강연 ‘집을 들고 행복을 더하는 법’, 5월 27~28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챌린지를 통해 발생한 물건으로 라운지와 야외주차장에서 ‘포브마켓’을 개최한다.

‘다알라쑈’은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링크(<https://bit.ly/2022상반기다알라쑈>)에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9일 구 홈페이지에 3만 9842필지에 대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구청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구청 1층 지적과에서 시행한다. 전화 상담 ☎02-330-1254~6도 가능하다.

성동구, 장년층 아지트 성동50플러스센터 ‘문 활짝’

창업준비 사무실·미디어실·커뮤니티실·카페 등 거점 마련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9일 50대 이상 장년층들을 위한 성동50플러스센터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성동50플러스센터는 면적 1071㎡ 규모로 강의실, 컴퓨터실 등 교육공간과 상담실 등 은퇴 전후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장년층의 창업과 단체 설립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등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창업준비 사무실’과 함께 ‘컴퓨터실’, ‘미디어실’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공간도 갖췄다.

커뮤니티실과 전시회, 연주회, 복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

는 힐링 공간과 요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북이’와 같은 장소도 마련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행당동(왕십리로 241)에 위치해 2호선 한양대역 및 2·5호선·경의중앙선·분당선 왕십리역 10분 이내, 버스 정류장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넓은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차량 이용자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1.3.)제정에 이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특히 복지관과 노인교실 등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다수의 시설과는 달리 부족한 장년층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시설 확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추가 설치

서울 관악구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먼저 올해 22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초등학교 주변 및 사고위험 지역 29개 횡단보도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와 58개소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주민의 만족도를 높

였다.

올해는 초등학교 주변 10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와 사고다발 횡단보도 50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바닥에 신호등이 표시되어 보행자들의 사고위험을 줄여주며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신호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주의력을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



성동50플러스센터 내부 모습.

〈성동구 제공〉

채취업 등 소득활동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인생재설계, 사회참여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 준비에 나선 구는 성동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오는 6월부터 맞춤형 ‘인생이

모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생이모작 사업은 동년배 상담, 새로운 일상 준비 등 삶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인생설계’와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 50대 세대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활용한 열린 강좌와 마을학교 운영 등 ‘50+당사자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해 여전히 활력 넘치는 장년층의 힘찬 일상을 응원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혁신하면서 달려온 5060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세심하고 알차게 마련한 성동50플러스센터를 통해 50대 이후의 삶이 든든한 도시,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종로구, 공연전문가·문화기획자 등 육성사업 추진

예술관광분야 희망자 채용

경험·직무교육 후 취업 지원

서울 종로구는 서울시 주관 ‘2022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공연전문가·문화기획자 등을 육성하는 내용의 4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공모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 보육 매니저’, 지역예술축제 추진을 이끌 ‘공연 전문가’, 종로만이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문화기획자’,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시민예술사업 및 공연 운영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내용으로 응모해 이들 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2년여 간 위촉돼 있

던 예술관광분야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청년들에게는 종로문화재단에서 현장 경험과 함께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멘토링·직무교육,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 ‘청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종년, 노년층 등 각계각층 주민들의 취업·창업을 돕고 그간 얻어놓았던 예술관광분야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구로구, 어르신 방역물품 꾸러미 지급

65세 이상 5만 8000여명 대상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꾸러미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의 어르신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역물품 꾸러미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

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2022년 4월 30일 기준) 5만8000여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별도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방역물품 꾸러미는 1인당 1세트 지급되며,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손소독티슈, 합

균비누, 물티슈, 마스크 스트랩(끈) 등 6종으로 구성됐다. 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르신에게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코로나19 극복 후원 성금을 활용해 복지관 7곳과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에 신속지원검사 키트와 방역물품을, 지역아동센터 24곳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17곳, 은종일반복지센터 16곳에 방역소독기와 소독약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택시 용달 개발화물 운수 종사자, 입차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예술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정희 기자 seo@jeonmae.co.kr

영등포구, 영등포 롯데백화점 ‘스튜디오 영원’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온라인시장진출 지원

서울 영등포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인 ‘스튜디오 영원’을 조성하고, 2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롯데역사(주)와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등포역 주변 공간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시네마동 2층(영등포구 경인로 846)에는 공공과 민간, 사회적경제,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이는 소풍 공간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실험의 공간인 ‘스튜디오 영원’

이 문을 열게 됐다.

‘스튜디오 영원’은 지난 3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4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개소를 앞두고 있다.

공간은 총 면적 105㎡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품 판매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실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공동 작업 공간인 개방형오피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디어실에는 실시간 온라인 쇼방 송신 라이브커머스, 기업 홍보 영상 및 제품 촬영이 가능하도록 캡컷, 카메라, 조명 등 각종 방송장비들이 구비돼 있다. ‘스튜디오 영원’은 영등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소상공인, 1인 미디어 관련 청년, 창업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동작구, 전기 내선공사 실무자 양성 교육

취업 희망하는 중장년 구민 대상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민 대상 ‘전기 내선공사 실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전기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는 물론,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민이 성공적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40~64세 중장년 3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약 12만원 상당의 전기기능사 필기 실기 자격증 응시

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교육생 모집과정을 거쳐 6월부터 10월 까지 배관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전기 설비 실무, 전기기능사 필기·실기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7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80% 이상이 실무 위주의 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는 물론,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민이 성공적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수료 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 취업상담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면접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희 기자 seo@jeonmae.co.kr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재개한 보건소 관계자 및 방문간호사들.

〈강남구 제공〉

강남구 ‘찾동 방문간호사’ 복귀… 어르신 건강관리 나선다

22개동 배치…정순균 “충족한 안전망 구축으로 강남다운 최적복지 실현”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동마다 배치된 간호사가 어르신·취

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찾동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진자 관리에 투입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으나,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5일부터 22개동 업무에 복귀했다.

구는 ▲금 체험 치유 프로그램 ‘어르신 행복드림(夢)’ ▲각 동 특성에 맞는 ‘어르신 건강 소모임’ ▲1:1 심폐소생술 교육 등 찾동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강남구 웰에이징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시니어 건강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일상회복으로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각 동별로 어르신 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품격강남’다운 최

적복지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김선갑 광진구청장 예비후보 “민선7기 성과 토대 승리로 보답”

선거사무소 개소식…정청래 의원·고민정 의원·당원·지지자 등 참석

김선갑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민선7기 성과와 자산을 통해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고민정 의원을 비롯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김 예비후보는 “민선7기 시작할 때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를 97% 이행하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4년 연속 공약이행 최고등급을 수상했다”면서 “지난해 한국 갤럽의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92.2%라는 높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 지난 성과와 자산을 가지고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서는 최후로 10만 표



김선갑 광진구청장 예비후보(가운데)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구의원 출마자들과 손을 번쩍 들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을 득표하며 65.92%라는 높은 지지율로 민선7기 광진구청장으로 당선돼 지난 4년간 구정을 이끌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시절 8년 연속 매니페스

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단체장으로서도 4년 연속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수상하는 등 신뢰행정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20대 자살예방 사업 추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대의 자살예방을 위해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 지역밀착형 마음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구는 20대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과 협력해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구는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이해,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전략 등 '생명지킴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성신여대는 구가 주관한 생명지킴이 교육이수 학부생 3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킴이 동아리'를 운영해 자살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동아리는 내달부터 생명사랑캠페인, SNS등 온라인매체를 통한 생명사랑문화 전파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이대가 비슷한 20대에게 우울증, 코로나블루 등을 상담해주는 '도래상담가' 활동도 나설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골목길 재생사업 '착수보고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답십리로 48나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980년대 후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답십리로48나길 일대 지역은 건축물의 노후화, 주차문제, 인근 지역과의 개발차차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지난해 서울시 주관 '2021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 말까지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 일대의 생활 기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골목유형별 생활밀착형 계획, 실효성을 담보한 정비지원 기준 마련, 주민협업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구는 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경진대회

서울 성북구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성북구 탄소중립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북구 환경의 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주제는 올해 구정목표인 '탄소중립 도시 성북'을 반영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인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감량, 에코마일리지 가입,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작품소재로 선정 받는다.

환경에 관심 있는 관내 초등학교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저학년은 8절지, 고학년은 4절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학교별 자체심사를 거쳐 그 중 우수작품이 구청으로 제출된다.

용산역사박물관 프로그램 본격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용산역사박물관(한강대로14길 35-29) 프로그램 '용산LAB: 도시역사편 - 철도병원, 다시 태어나다'를 본격 운영한다.

기획전시 중인 옛 용산철도병원이 주제다. 시청각 자료, 활동지, 입체카드를 활용해 교육효과를 높인다. 40조각으로 구성된 입체키트는 조립 시 용산역사박물관 모형이 된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7월까지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열린다. 회차별 정員 15명(선착순). 교육비는 무료다.

오는 7일 교육은 비대면, 이후 21일부터는 박물관 현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용산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서울 중구는 지역 내 3만 3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적정가격으로, 국제·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70% 상승했다. 주거지역이 10.22%, 상업지역은 5.46% 인상됐다. 지역에서 최고지가를 기록한 개별지는 명동역 인근 충무로1가 24-2번지로 1㎡당 1억 8900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장충동2가 산14-43번지 남산공원 부근 입야로 1㎡당 19만 4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중구청 토지관리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사업비 30억 원 확보
신선·수변·다양한 로컬점포 등 활용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 탈바꿈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특색과 매력 있는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기반 조성부터 활성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양평동 선유도역 일대 상권을 묶는 '선유로운 상권'을 제안,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유로운 상권'은 지난해 영등포구 제1

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된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와 선유로55길 골목상권, 양평로 22라길 선유건고싶은거리를 포함한다.

한강, 안양천과 접한 풍부한 수변 공간과 편리한 교통환경, 창의예술센터, 가로공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자랑할 뿐 아니라, 젊고 활기찬 분위기 속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성향과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보이며 상권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는 이번 공모에서 5가지 로컬콘텐츠

를 제시했다.

먼저 ▲선조들이 신선놀음하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仙遊)도'의 명정에서 착안해 밀레니엄, MZ세대가 함께 즐기는 일상 속 '선유로운' 생활상권 조성과 ▲서남권 수변 랜드마크인 선유도공원,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안양천 수변공원-선유도역-양화한강공원 녹지벨트'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이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골목상권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과거 해매제과 공장부지와 현재 못, 데제과 공장이 위치한 '스위트 빌리지'이다. 과거 박물관인 스위트 팩토리에서 선유도

강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경관계획 수립

강동형 경관가이드라인 제시…경관조례 개정 추진

서울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경관계획은 행정구역별 권역별로 나눠 지역별 경관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층주거형태 중심의 건축물이 밀집된 천호·성내, 길동·둔촌 권역을 '전략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구체적인 관리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녹지축, 수변축, 가로축, 도로축 등 자연경관 및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경관축'의 관리방안과 역사권, 역사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관리방안도

담겼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구체적 설계방향과 원칙 등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는 경관법제16조 및 강동구 경관조례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 유형을 토대로 구에서 수행 가능한 경관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향후 연속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검토 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경관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관조례도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갖고 있는 경관자원과 도시여건 변화 등 강동구의 현안에 대한 분석부터 관리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까지 마련, 장기적 관점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전략적 경관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노원구 “건강한 임신·출산 도와드려요”…모자보건사업 재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임신초기검사·기형아 무료검사·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일부 중단했던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돕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보건소 4층에 모자건강센터를 마련해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관리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은 대면 서비스인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임신 초기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이다. 먼저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가임기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평가와 건강검진 즉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두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무료 임신제도 지원한다.

임신 초기 검사는 임신 10주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다. 일반혈액검사,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을 통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태아 기형아 무료 검사는 임신 16-18주에 들어선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태아의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는 전문교육

을 받은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평가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모자건강센터는 평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2-2116-451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모자보건사업을 비롯해 기존 보건소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양천구, 서울시 최초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5월 1일~11월 30일…2만 원 지원
가구 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진행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집을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다른 등록방법(외장형칩, 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등의 위험이 적어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396마리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 당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지원 비용은 2만 원이다. 이 기간에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등록하거나, 외장형칩에서 내장형칩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물병원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신청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반려묘는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내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내장형 동물등록비의 경우 4~8만 원의 고비용이 들어 소유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번 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반려가구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2620-491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영등포구, 어린이날 행사 진행

영유아가정 250가구와 특별한 이벤트

서울 영등포구는 다가오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관내 250가구의 영유아(만 0-5세) 가정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 곳곳에 위치한 맘든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8개소의 영유아복지 시설에서 진행되어 집과 멀리 않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들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다.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신길4동, 영등포동, 당산1·2동, 문래동, 대림동을 위치한 맘든센터 6곳과 신길4동 장난감도서관, 탁본인 맘스기든을 방문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 앞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찰칵찰칵 포토존'과 ▲공급이 상자에 담긴 '우리 가족 퍼즐놀이', '뽀빠 종이접기 놀이', '아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미션을 완리로 뽑아 수행하는 '두근두근 미션 수행' ▲행사장에서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롤루롤라 놀아볼까?'로 구성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공원까지 이어지는 선유건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 '과자'를 콘셉트로 한 공방체험, 쿠키클래스 등 다양한 로컬문화 플랫폼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책코스로 좋은 주변 자연환경,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 전용 오피스텔 등 반려동물 인프라를 두루 갖춘 이점을 살려 콘텐츠를 개발하고 ▲약 50여 개의 독립브랜드 및 로컬크리에이터 상점을 통해 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선유로운 상권'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소상공인과 서울시, 서울상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신선(Fresh)과 신선(仙)이 노니는 선

유로운 상권'을 함께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구는 본격적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에 앞서, 올해 6월 말부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상인과 대표 주민, 대표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코로나19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 제283회 임시회 폐회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김용환) 제283회 임시회가 신립재정비촉진계획(신립1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홍 의원 대표발의) ▲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

정 일부개정규정안(주무열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김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8대 관악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구민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관악구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은평구,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도입

신고·결제·수거까지 간편하게
7월부터 모바일·웹 서비스

서울 은평구는 ㈜갑다와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빠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빠기' 서비스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지정된 국내 최대 AI 기반 폐기물 배출 서비스이며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시스템과 함께 쓰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대형생활폐기물의 신고, 결제 및 수거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을 대신 운반

해주는 '내려드림' 서비스도 도입해 노인·여성인구 및 1인 가구의 폐기물 배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불 철차도 기존엔 동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신청한 뒤 최대 15일이 소요됐으나 이제 앱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 업체들과 협력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용근 자원재활용팀장은 “최근 크게 증가한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을 '빠기'서비스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노현송 강서구청장, 강서구상공회 장학회 출범식 참석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가운데)이 최근 강서구 JK블라썸 호텔에서 열린 '강서구상공회 장학회 출범식'에서 상공회 관계자들과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강서구상공회는 회원들이 심사일반 뜻을 모아 출연한 기부금 5억 3000여만 원으로 장학회를 설립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Q&A로 알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Q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1.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또한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Q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한가요?

A2.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지 않거나 사직하는 경우, B도의회에 출마하는 경우, B도의회이 B도지사에 출

마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예)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경우 3월 3일까지 사직, A시의회이 B구청장에 출마하는 경우 5월 2일까지 사직

Q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특집 홈페이지'(nec.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통계 시스템'(infonec.go.kr)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방선거 기본현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현황, 투·개표현황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취재팀〉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천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과 포상금 3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식품안전관리 4개영역 14개 세부지표인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 식품안전 우수사례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최근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라 배달업에 등록된 모두 1만4866개 배달업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와 식품자동판매기 무인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등 선제적 식품위생관리에 힘썼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앞으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단계까지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아파트단지 입주 따른 전입신고 창구 설치

인천 부평구 십정1동은 29일 인천시 최대 규모 아파트단지인 5678가구, 약 1만5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준공에 따라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등 민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청사 5층 대화의실에 전입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별도 설치한 2개의 민원창구에서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입주 가구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하고,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증가된 인구 수요에 발맞춰 동청사 앞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이들, 동 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아파트 내 1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문 7000부도 별도 제작해 전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백령·대청·덕적·지월 면허어장 전복 방류

인천 웅진군은 관내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를 위해 백령·대청, 덕적·지월 면허어장에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어린 전복 약 100만 마리(백령·대청 50만, 덕적·지월 50만)를 방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방류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감사를 거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어린 전복 우량종자만 선별해 방류했다.

어린 전복 종자의 보호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해조류가 풍부한 지역에 잠수부가 직접 인착기는 방법으로 방류해 조류에 의한 유실과 해적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들, 군은 올해 어린 전복 방류사업을 시작으로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해 해삼, 넉지, 꽃게, 조피볼락, 참농어, 바지락, 동족 등 다양한 품종의 어패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불법 카메라 합동점검단 ‘스캐너’ 활동

인천남동경찰서는 ‘스캐너’라는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본격 활동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스캐너는 너(설치된 카메라 등)가 어디에 있는 구석구석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최근 만연해진 불법 설치 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조직됐으며, 경찰관 및 관내 지하철 역사(8개), 학교(42개교), 인천성북력상당소 등의 관계자 77명으로 구성했다.

합동점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 지하철, 공원, 대형마트 등의 공공장소상 13개소에 대한 불법 설치 카메라 탐지 활동을 벌였다.

김철우 남동경찰서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잠재적인 피해가 더 많은 범죄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생태계 교란 식물 집중 퇴치사업 추진

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관내에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집중적인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한번 발생한 장소에 매도종자가 있어 4~5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주기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특히, 돼지풀과 단풍잎 돼지풀은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유발하고 가시박은 병균이 수목을 덮어 토착 식물들과 고사시키는 등 제거가 시급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1989년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을 시작으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식물들을 중심으로 총 16종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하천, 수로, 농로 주변, 계양산 등에 서식하는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 상추 등을 뿌리째 뽑아 제거 효과를 높이고 생육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 종의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확산을 방지해 고유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경제청,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 ‘청신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선정 …총연장 1km·왕복 4차로 건설

대형 화물차량 운행 따른 가설교량 안전 문제·교통난 개선 등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8번째 교량인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이 기획재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 29일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예비타당성 대

상사업 선정에 협조해 준 지역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구축,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도심 및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송도 11공구·인천신항을 연결하게 될 송도5교 건설사업은 총연장 1km 왕복 4차로(측도 4~6차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9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은 “송도5교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대형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가설교량 안전 문제 해결, 송도 정주여건과 물류 수송기반 시설의 획기적 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항만물류 수송의 안전성 확보, 송도 11공구·인천신항 개발로 인한 교통량·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항만 경제청 송도기반과장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긴밀히 협조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및 통과, 국회의 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국립 단수추천 연수구청장·웅진군수 후보 ‘보류’

컷오프 후보자들 재심 요청 등 반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단수 추천한 연수구청장·웅진군수 후보들이 중앙당 의결을 받지 못하고 보류됐다.

1일 인천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는 최근 회의에서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연수구청장과 웅진군수 후보 단수 추천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당 공관위는 하루 앞선 지난날 27일 연수구청장 후보에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웅진군수 후보에 문경복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단수 추천한 바 있다.

이들의 단수 추천 사실이 알려지자 컷오프된 출마희망자들은 즉각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는 “무소속 출마”까

지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연수구청장 출마희망자들은 “이 전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자신이 후보로 확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연수구민에게 배포했다”며 이 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중앙당 최고위가 이 전 구청장, 문선 국장의 단수 추천안을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의 연수구청장·웅진군수 후보 결정은 뒤로 미루지게 됐다.

한편, 시당 공관위 관계자는 “중앙당 최고위가 연수구청장·웅진군수에 대한 안전을 상정하지 않고 미뤘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시상수도본부,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서포터즈 활동 개시

150명 발대식…캠페인 등 활동

인천시상수도본부가 상수도 행정의 신뢰 회복과 수도물 품질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2년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9일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진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는 2020년 ‘미추홀잔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로 시작, 올해로 3기째를 맞이하는 시민참여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인천 수도물의 새 이름을 반영,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며, 시민평가단 120명과 서포터즈 30명 등 모두 150명의

시민을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선별했다.

또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맞춰 곳곳에서 열리게 될 관내 행사에서 수도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대학 캠퍼스 등에서 인천하늘수 음용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종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수 수도물의 인식개선은 시민 한분 한분의 입소문을 통해 인천하늘수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도물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즈 모두가 상수도 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도물 감시자로서 활동에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미추홀구 송의동 지주대조합, 2차 조합원 모집

하반기 조할 설립인가 계획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크루즈시티 파크뷰 지역주주대조합단지는 지난해 10월 25일 미추홀구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 뒤, 2차 조합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사업지역 내 일괄적인 보상실시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현장조사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합원의 우려사항 해소와 원도심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원도심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뉘길

수 있도록, 크루즈시티파크뷰 지역주주대조합 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도이엔지(대표이사 공원표)는 (사)미추홀광역시(이사장 석종연)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생활품과 행복꾸러미(2500만 원 상당) 전달사업(본지 2021년 12월 27일자 8면, 4월 21일자 8면 보도)을 펼쳤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나눔 복지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원도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와 관련, 다방면으로 기여해 국회의원 및 인천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는 최근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및 직원봉사단과 함께 인천 남동구 장수천 일대에서 노랑꽃창포 식재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건협 인천시지부, 장수천 노랑꽃창포 식재지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는 최근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및 직원봉사단과 함께 인천 남동구 장수천 일대에서 노랑꽃창포 식재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노랑꽃창포 식재 운동’은 하천변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협회 시지부는 장수천과 청라문화공원 일대에 환경을 위해 수질정화 능력을 갖춘

노랑꽃창포를 식재했다. 그 중 한곳인 장수천에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와 식재지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와 함께 및 잡초 제거를 하며 지구환경 관리에 도움을 줬다.

서영실 본부장은 “인천시지부는 환경을 생각해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협회를, 탄소중립운동 등 다양한 환경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하대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동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정보통신기획지원(ИTPI)이 지원하는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딥러닝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

업이다. 향후 5년 동안 총사업비 3018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인하대는 모두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팀은 ‘인간처럼 화상이 가능한 인공 신경망 지속학습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한다. 인공신경망에서 기존에 학습된 통찰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딥토탈 리콜(Deep Total Recall) 플랫폼을

개발, 인간의 뇌와 같은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연구다.

최동완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조교수 위주로 구성된 팀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과 경쟁해 본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은 인하대 인공지능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최선”

보전방안·진흥구역 지정 중간보고회 유형별 상세조사 매뉴얼 기록법 제시

인천시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1월 1차 중간보고회 이후 2차 점검을 위한 보고회로,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시와 중구·동구 관계공무원, 총괄건축가, 자문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의 가치창조를 위해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유 공간 환경 조성·관리와 시 전역에 분포한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진행되며 건축자산의 상세한 조사·기록방안과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건축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에서는 그동안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멸실, 누락현황 및 추가 자산대상 등을 조사하고,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을 목록화에 노력되는 건축자산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아울러 건축자산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유형별(창고, 업무시설, 상점, 사택, 주택)로 변화과정 실태, 활용 등 상세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인천민의 건축자산에 대한 역사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문가 및 시민네트워크 그룹 중심의 좌담회와 건축자산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가버나스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전·선·면으로 대표되는 건축자산

의 세부적인 관리와 건축자산을 콘텐츠화해 지역 활성화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원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과업 초기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MA(Master Architect) 도면을 도입, 실천과제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했다.

시는 이번 2차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돼 있어 잠재 가치를 높은 건축자산이 우리 눈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보전·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서구문화재단, 클래식 음악축제 ‘정서진 스프링 클래식’ 선보인다

정서진 광장 등 문화충전소 곳곳서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등 출연진 화려

인천 서구문화재단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통 클래식 음악 축제인 ‘제5회 정서진 파크너 클래식 2022’의 범시 프로그램인 ‘정서진 스프링 클래식’을 오는 7일부터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재단은 이달 21일까지 정서진 광장,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 코스모 4와 서구 문화충전소 곳곳에서 국내외 최고 클래식 연주자들의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

7일 개막공연에서는 슈퍼밴드2·북면기왕 등에서 활약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전 세계에서 단 7명만 선발하는 USC 델로리아스 뮈크 인스티튜트에 아시아인 최초 전액 장학

생으로 선발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최고의 반도메오니스트 인기 있는 연주자 ‘고상지’, 앙상블디토·TIMF 앙상블 등에서 각원으로 활동하며 슈퍼밴드2 출연에 빛나는 비브라피니스트 ‘윤현상’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15일에는 뉴에이지 음악의 거장,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기 구리모도 콘서트가 청라블루노바홀에서 지난 1999년 첫 내한 이후 매년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의 신화, 10여 개 도시 투어, 예술의 전당 유료관객점유율 1위 선정에 빛나는 공연으로, ‘메디테이션’, ‘레이크 루이스’ 등 유기 구리모도의 대표곡들을 연주한다.

정서진 스프링 클래식 공연 중 일부는 엔터켓을 통해 사전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인천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isc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항만공, 中 단둥·스다오 항로 카페리 운항 중단

선원 확진·中 항만 운영 차질 원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천항의 카페리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날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 단둥과 인천을 오가는 카페리인 1만 6537급 ‘동방명주6호’ 운항이 중단됐다.

여객 700명과 화물 140TEU(1TEU는 20

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카페리는 중국 당국의 도시 봉쇄령에 따라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 스다오와 인천을 오가는 3만 5092급 ‘화동명주8호’의 선사도 지난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휴항에 들어갔다.

선사 화동해라는 주 3회 운항하던 카페리 선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코로나19로 중국 항만 운영에 차질이 벌어지자 휴항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한 번에 여객 1500명과 화물 376TEU를 운송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말부터 2년 넘게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고 있는 인천항 카페리 선사들은 운항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여객 없이 화물 운송으로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카페리 운항 재개를 할 수 없게 되니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아간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광주광역시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간 교차로 밝기개선을 하는 조명타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 사는 모두 7만7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49%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교통감시카메라 지주에 투광등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장소는 경찰청 추천장소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통계 분석 자료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미륵, 일곡, 목련 교차로 등 3곳이며 오는 7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차로 밝기개선 사업으로 아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돼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시민들이 많아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 창원시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담은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감으로 조합 가입 전 토지사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지하철로 지역자활특화사업 공모 3년째 선정

전남 무안군은 무안지역자활센터가 2022년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한 지하철로 지역자활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 합산 총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년에 선정된 불용물품 재활용 사업은 2022년 지역자활특화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배출된 불용물품 수집·운반과 가공·수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순환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박형준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어려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권상홍기자 ksy@jeonmae.co.kr

산양삼 4년 연속 명품 대상 수상

경남 함안군의 특산물인 산양삼이 4년 연속으로 명가 명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최근 열린 2022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지역별 란드부문에서 함양 산양삼이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전례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부터 명품산양삼을 육성에 산양삼 생산 신고 기준 222농가 440ha로 전국 최대 산양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산삼축제를 열어 함양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개최한 2021함양 산삼엑스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양삼 대표 주자로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함양산양삼이 엑스포 이후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가명품이 되고 산양삼 산업화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함양/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소류 심성지 선생의 생애·학문’ 학술발표회

경북 청송군은 ‘소류 심성지 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최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황만기 인문대 퇴계학연구소 연구교수와 권영배 계명대 객원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소류 심성지의 삶과 학문, 소류 심성지와 청송지역 의병활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심성지 의병장은 1898년 3월 16일 창학한 청송의 진 창학장 활동을 시작으로 청송을 중심지역으로 의병활동을 한 자랑스러운 청송의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송/ 김태진기자 tkim@jeonmae.co.kr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경북 영양군은 최근 입암면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 읍·면 순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불철 화재 예방 중대시기를 맞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두행진을 했으며 안전 문화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날 캠페인은 봄 행락철 안전위험요소 신고, 코로나19 예방, 유해환경 정비 등을 적극 홍보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행사에 참여해 주민 입암면 주민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해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양/ 김광원기자 kw-kim@jeonmae.co.kr

전남TP,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 기술혁신기업 투자기회 제공·스케일업 촉진 행사 운영

8개사 IR 피칭·15개사 1:1 투자상담 등 지속적인 지원 예정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지역 기술혁신 성장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2022 JNTP IR CHALLENGE’라는 슬로건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처음 개최하며 지역 및 수도권의 15개 벤처 투자자가 동참해 전남지역 기술혁신기업에 투자기회 제공하고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행사다.

NGF라는 슬로건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처음 개최하며 지역 및 수도권의 15개 벤처 투자자가 동참해 전남지역 기술혁신기업에 투자기회 제공하고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행사다.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8개사의 IR 피칭에 이어 투자자와 1:1 투자 상담에 총 15개사가 참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동국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 남기업의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통해 빛을 볼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전남 순천시가 도 주관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순천민국가정원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웰니스 대표도시 도약

전남 순천시가 도 주관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핵심 사책인 블루이코노미는 전남의 청정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전남의 미래비전으로 블루에너지, 블루판

광, 블루시티 등 6개 분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블루시티 분야에서 ‘생태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웰니스 대표도시’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남을 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웰니스 도시로 도약한 시는

전환경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고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 최우수상의 영예로 돌아와 기쁘다”며 “순천의 풍부한 생태자원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30만 정원 도시 미래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경북 11개 대학, 국비 2600억 지원받는다

LINC 3.0사업 공모 최종 선정 2027년까지...기업가형 대학 육성

경북도는 최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사업)’ 공모에 지역 11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매년 435억 원씩, 6년간 총 2600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된 1·2단계(LINC, LINC+)의 후속사업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상생모범을 발굴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간,

대학-지역사회 간 자생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공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술혁신선도대학에 선정돼 6년간 330억 원(연간 5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포항공대는 차세대 타프기술로 대학 내 대부분의 학과와 전임교원이 참여해 차세

대 ICT,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미래에너지, DX+첨단제조, 5대 특화분야 중심의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산업분야 3000명의 인재양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삼길 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앞으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건실한 협조를 기반으로 우수 인재양성,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여수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정의 달 할인이벤트 팜팜

선착순 4000명 1만3000원 할인

전남 여수형 공공배달앱 ‘쌍쌍여수 먹깨비’가 내달 가정의 달 특급이벤트로 통 큰 할인을 진행한다.

시는 1일부터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주문 즉시 1만 원 할인을 제공하고 주문을 완료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페이백으로 상에서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첫 주문 8000원 할인, 포장주문

1000원 할인, 점심여수페이(카드형) 결제 시 5% 페이백, 배달팁 할인, 경품 이벤트, 리뷰 이벤트, SNS홍보 이벤트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먹깨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첫 주문 이벤트로 8000원을 먼저 할인 받고 다음 주문 시 이번달 특별행사에 참여해 두 번 주문만으로 총 2만1000원의 통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먹깨비’는 이외에도 매달 진행하는 특

별행사(선착순)와 여수시민의 날, 명절, 연말연시 등 특별한 날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쌍쌍여수 먹깨비’ 이용으로 소상공인(외식업체)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해달라”며 “참제된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윤정호기자 sss2996928@jeonmae.co.kr

금요공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기업과 협업...6년간 240억 지원

국립금요공과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요공대는 ‘수요맞춤성장형’ 유형에 선정돼 최대 6년간 총 사업비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요맞춤성장형 유형은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요공대는 이번 LINC3.0 선정을 통해 산학연 일체형 플랫폼을 통한 수요맞춤 성장형 혁신 선도모델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산학연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 제도, 콘텐츠, 운영 및 관리 활동 등을 모듈화하고 창의적으로 연계·조합해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창출하는 금요공대만의 산학연협력 모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요공대는 미래 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신산업·신기술 공동 창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출, 지산학연 공유·협업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일체 대학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중심 명문대학’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산학연연계 교육시스템 운영, 기업맞춤 R&BD, K-Star 200 기업 중심의 협업 강화, 산학협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 땀

대구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약 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활동적 고령자층의 주제적 인문 활동을 지원해 지혜로운 노년 의 모델을 만들고 인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지혜학교는 계명대학교 국문학과 이혜경 교수와 함께 ‘활기찬 신장년을 위한 놀이 문화 찾기’라는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남원시, 몽골 근로자 환영 행사...농촌 인력난 해소

32명 입국...사전 교육 실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기드군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32명이 전북 남원시에 도착했다.

시는 입국 후 이틀간의 시설 격리를 마친 근로자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외국인의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몽골 결혼이민자의 통역을 통해 근로자들을 기다리던 농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상견례와 근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한 농업인은 “농가에게는 소중한 인력 지원으로 경영 활성화, 근로자는 농업기

술 습득 및 근로 소득 향상을 통한 기반 마련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발전하는 기원으로 삼자”고 말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역과 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침해와 부당 근로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고용주 및 근로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입국을 시작으로 시와 몽골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 사업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오광식기자 oks@jeonmae.co.kr



경남 하동군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양귀비 꽃단지를 개방한다.

<하동군 제공>

하동군 “금오산 케이블카타고 꽃양귀비 만끽하세요”

13일부터 10일간 꽃단지 개방

우리나라 대표 봄·가을 축제장인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마을 들안에 꽃양귀비꽃이 만물을 타르듯 붉은 자태를 드러냈다.

장삼길 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앞으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건실한 협조를 기반으로 우수 인재양성,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꽃양귀비 작황은 예년 못지않게 화려하며 적색과 분홍의 꽃양귀비를 비롯해 노란 유채, 자색의 보리유채, 하얀 인개꽃 등 5색의 꽃밭이 더욱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장미 분재 기획전시, 다육이 전시 및 판매장 운영 등으로 방문객

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북한꽃단지 인근에 최근 개장한 하동 플라워웨이 케이블카 탑승자에게는 꽃단지 내 직거래장터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청정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해안 최고의 랜드마크 하동 플라워웨이 케이블카는 인근 금오산에 위치해 케이블카 타고 꽃양귀비도 구경하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며서 꽃단지를 전면 개방하게 됐다”며 “남해안 최고의 케이블카도 타고 꽃양귀비의 꽃밭이 더욱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하동/ 임홍섭기자 inhs@jeonmae.co.kr

함안군,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원활한 인력수급 기대

농기소득 증가 도모

경남 함안군은 최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병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내 농협 단체장,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촌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선정액 사업비 1억2000

만 원을 확보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작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교통비·안전교육·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철 군수 권한대행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 영농 지원으로 일손부족 해소 및 농기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 김경호기자 jk2009@jeonmae.co.kr

어린이날 ‘진양호로 놀러가자’ 행사 눈길

진주시, 꿈키움동산서 개최 다양한 체험행사·공연 선포

경남 진주시는 5일 꿈키움동산 앞 다이나믹광장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진양호로 놀러가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어린이날이 100회를 맞은 뜻깊은 해로서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기념행사를 열어 어린이날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버블 공연과 대학생 동아리 공연으로 막

을 올린다.

이어 자연의 목걸이와 캘리그래피 책갈피 만들기, 자기이해를 위한 타로 테라피 및 가족 참 장식과 비즈 마스크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투호놀이, 대형 블록 쌓기와 대형 윷놀이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방문객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5일 진양호동물원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한다.

진주/ 박종복기자 bjb@jeonmae.co.kr

제1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경기 안양시의회는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근 5일간 개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해 4건의 개안사항을 심사의견서로 채택했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도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종식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임산부 온라인 사전·사후 우울검사 시행

경기 가평군보건소는 이달부터 가평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전·사후 우울검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소는 우울증을 자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사후 우울검사(에디버러 우울척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한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 32주부터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다. 본 검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사결과 9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등록은 보건소 및 가까운 보건지소에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제출 시 가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제 및 침분제 지원 등 지원되고 군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한 의료비 지원 항목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 교육 물품 제공

충남 논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 21개소의 소규모급식소 어린이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물품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건강하게 골고루 먹어요’란 주제로 진행되며 콩나물 키우기 키트를 제공해 어린이들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봄으로써 친근감을 가지고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식품구성 사전지’를 활용한 영양교육 자료를 제공해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정진 센터장은 “어린이 대상 교육을 통해 등록급식소 어린이들이 골고루 먹기에 대해 바로 알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장학위원회 개최…장학생 142명 선발

충남 청양시장애인재능성장학회는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장학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했다.

청양시장애인재능성장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선발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장학생 11명 등 총 142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오는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군 홈페이지나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에 출범한 장학회는 지난해까지 3600여명에게 42억 원의 장학금과 장학사비를 지급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청양의 미래를 열어갈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 이연경기자 leegy@jeonmae.co.kr

금산군 행정 돈보였다

도 시군통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 확보

충남 금산군의 수준높은 행정 업무가 호평을 받았다.

군은 2021년 실적 기준 충남도 시군통합평가 군 단위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 주관으로 주민에게 효율

적인 자원과 누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5개 시군의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 11개 수행 지표 심사 후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군은 성직 향상을 위해 군수·부군수 실적점검 보고회 개최, 전문자 컨설팅, 군정평가의 시군통합평가 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정량평가에서 총 71개 지표 중 57개가 최고 등급 탁월을 달성했고 정성평

가에서 총 20개 지표 중 14개가 군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로 확보한 재정 인센티브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전 공직자들의 노력한 결과 이번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경기도 심리상담 기관 10개소 대표와 ‘경기게임문화센터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업무협약

상담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최근 광명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경기도 심리상담 기관 10개소 대표와 ‘경기게임문화센터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게임문화센터와 협력 상담 기관은 게임 과몰입 관련 경기도민에게 심리상담 및 검사를 제공하고 더 나은

경기도 게임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게임문화센터는 게임 과몰입 내담자를 협력 기관에 연계해 종합심리검사를 비롯한 전문 상담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강원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박차

2개 과제 선정·국비 150억 확보
지역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기대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2개 사업에는 먼저 도 바이오 천연물바이오소재 분야의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소재 발굴·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시생산까지 활용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산업생태계 플랫폼 구축, 연구 및 시생산 장비 구축, 기능성 소재 유효성분 예측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00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추진한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업은 도(철원, 영월)와 대구가 협력해 추진한 ‘국내 부존자원 활용 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산자부가 초광역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그 의의가 각별하다. 국내 부존자원활용 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폐광지역(영월)의 무연탄, 강원(철원)

과 대구의 나노소재 산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경량화, 통신망(5G) 등 미래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장비 인프라 및 구축, 제조 공정장비 구축, 제품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윤인재 첨단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기능성 화장품 산업과 나노소재 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산자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강원 정선문화원은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상설공연의 막을 올렸다. <정선문화원 제공>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공연 광파르

정선문화원, 상설공연 시작
70세 이상 어르신 구성 노골

강원 정선문화원은 정선을 애산리 아리랑촌 아리랑대에서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상설공연의 막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문화원에 따르면 지역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고은(Go Silver) 남들의 놀이마당인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주말 상설 공연에 들어갔다.

풍물과 연극, 춤, 아리랑이 어우러진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공연은 지난날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정선을 애산리 아리랑촌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공연 출연진은 정선지역에 거주하는 평균연령 78세에 이르는 23명(남 8, 여 15)의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으며

연극단 이름은 고은남이다.

공연은 문화원에서 고령화 사회의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세대간 문화전승, 자아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고은남들의 놀이마당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은남 연극단은 주말 상설공연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참여는 물론 소외계층 위문 공연 등을 통한 문화전도사 역할과 재능나눔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상재복 문화원장은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 주말 상설공연을 통해 정선민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선보이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좋은 공연도 보시고 생활의 활력도 충전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예산군, 산업형 관광도시 자리매김…방문객 급증세

예당호 출렁다리 인기명소 급부상

충남 예산군이 명실상부한 산업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이 집계한 주요 관광지 전체 방문객 수는 2014년 146만1965명, 2015년 126만6037명, 2016년 167만2108명, 2017년 196만3128명, 2018년 244만7406명, 2019년 559만7497명, 2020년 201만5027명, 2021년 263만19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 2019년 개통 첫 해에 2018년 군 전체 방문객 수를 뛰어넘는 239만7832명이 방문하며 새로운 관광 역사를 썼고 최근까지도 군 방문객 수를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0년 개장한 내포보부상촌 역시 첫 해에는 3만720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

는 24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세로로 명소로 급부상했다.

군에서 꾸준한 방문객 수 증가세를 보인 수력사는 지난 2017년 33만명, 2018년 70만명, 2019년 101만여명이 방문했으며, 화재공원 역시 2017년 2만8000여명에서 2018년 3만2000여명, 2019년 9만3519명으로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지 개발을 통해 올해에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양 축으로 하는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예당호 작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및 모교리, 워터프론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예산/ 이훈택기자 chillee@jeonmae.co.kr

파주시, 2200번 버스노선에 전세버스 증차 운영

오월부터 출퇴근시간 적용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2200번 버스노선(매곡동~흥대입구)에 2일부턴 출퇴근 시 전세버스 2대를 증차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버스 투입은 서울광안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해당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대에 2회씩 기존 노선버스에 추가로 운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의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루 161대의 전세버

스를 40개 노선에 투입하는데 시는 경기도 및 위원회에 꾸준히 요청해 2200번 노선이 선정될 수 있었다.

이 버스는 탄현면~출판단지~흥대입구~합정역을 주요경유지로 하루 16대가 98회 운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이용 승객이 많아 버스 증차 요청이 꾸준히 있는 대표적인 노선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광역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광역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제일건설, 연천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견본주택 개관

제일건설(주)가 시공하고 보라산업개발(주)가 시행하는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이 지난날 29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 11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며 정당계약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단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14~최고27층, 10개 동, 전용면적 65~220㎡, 총 84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생활인프라가 풍부하고 수도권에서 몇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인 연천군에 최초로 들어서는 대단지이자 제일건설(주) 브랜드 단지다.

교통 환경이 뛰어나 3번 국도 우회도로, 서울~양주~연천 고속도로를 통한 인근 지역 접근성이 높고 단지 가까이 1호선 전곡역이 개

통(2022년말 예정), GTX-C 노선 연장 개통이 예정 중에 있다.

각종 생활인프라도 풍부하고 한탄강 주변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시설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조성될 예정이고 전곡초, 전곡중, 전곡고도 가까이 우수한 교육환경 또한 자랑한다. 특히 연천군 전곡읍은 ‘농어촌 특별 전형’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한탄강 조망(일부가구 제외)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4bay 구조로 우수 개방감은 물론 집안 곳곳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특화설계도 적용했다. 또한 단지 내로는 잔디광장, 스토리가든, 리버파크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돌봄센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단지가 위치한 연천군은 희소성 높은 비규제 지역으로 가구주, 가구월 모두 청약 할 수 있고 주택 유무와 기존 당첨자실 유무 등에 상관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 할 수 있어 연천군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 연천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조감도.

서울/수도권 가파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연천군 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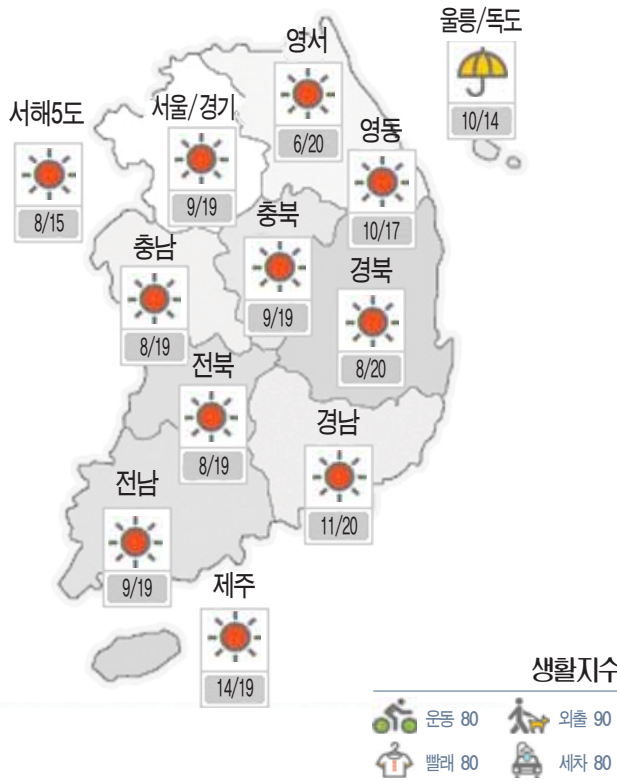
읍 전곡리 276-12번지에 소재하며 지난날 29일 오픈했다. 분양문의: 1533-1414 / 연천

<부동산AD>

<제일건설 제공>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쌀쌀...강원 산지엔 서리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로 다소 쌀쌀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5~21도 가운 분포를 보이는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부산·울산·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동해 중부 만나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2분기 다이옥신 측정

경기 의정부시는 3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2022년 2분기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시는 다이옥신 측정 시 관심 있는 주민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관해 공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호기, 2호기 0.000ng-TEQ/S m³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치인 0.1ng-TEQ/Sm³에 비해 미검출에 가까운 수치로 측정돼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 시설로 확인됐다.

정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시설관리와 최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그 외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규기자 kjg@jeonmae.co.kr

홍성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

충남 홍성군은 현재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해 2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21년도에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년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개년 사업 추진으로 접종대상자 1만4285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약 2570명을 백신 소진 시까지 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1회 접종만 지원하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20~30분간 보건기관에 머문 뒤 귀가하는 것이 좋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보건(지)소, 진료소에 전화 후 보건기관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 최성희기자 sgchoi@jeonmae.co.kr

청양군,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힐링 콘서트 19일에

충남 청양군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청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내 최정상급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방성호)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하기도 하며 다이나믹한 지휘로 호평받는 지휘자 방성호와 함께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매번 선보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은 전 연령 관람이 가능하며 예매는 2일~19일까지 문화회관 1층 사무실에서 1인 4매(부)까지 예매할 수 있다. 공연석의 경우 공연당일 현장에서 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공연 문의는 041-940-2734~5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회관 홈페이지(art.cheo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양/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삼척시, 조비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가 오본동 조비천 소하천 일대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오본동 조비천 일원은 소하천 협소로 인해 태풍 내습 시 교량 범람, 침수, 산사태 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시는 사업비 34억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원 포함)을 투입해 조비천 일원 462m 구간에 전설철거와 홍수 방어벽 등 호안을 정비하고 소규모 2개소를 개선하며, 침수 예방을 위한 소형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고 실시계획영역을 마무리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는 강원도에 소하천 사전설계검토신청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오본동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척/ 김충식기자 kimhs@jeonmae.co.kr

4년연속 횡령유용 사고...우리은행 ‘먹튀은행’

작년에도 2건 발생 4억 규모 은행권 내부통제 재점검할듯

우리은행이 지난해에도 2건(4억 원 대)의 횡령 유용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금전 사고 중 횡령 유용은 2건으로 액수는 총 4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의 횡령 유용 사고액은 2016년 13억1000만 원(6건), 2017년 2000만 원(2건), 2019년 5억8000만 원(2건), 2020년 4억2000만 원(3건)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은행 내부 통제에 지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인출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감사에 나서 우리은행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횡령 유용 사고는 16건으로 금액만 67억6000만원에 달

했다.

은행 중에는 하나은행이 35억9000만 원(3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농협은행(25억7000만원, 2건), 우리은행 순이었다.

도 신한은행은 지난해 횡령 유용 사고 1건에 8000만 원, KB국민은행은 3건에 2000만 원, 기업은행은 4건에 8000만 원, SC제일은행은 1건에 2000만 원이었다.

지난해 10개 국내 및 외국계 은행

중에서 한국씨티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에서 횡령 유용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사기 관련 사고 또한 8건(6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부 통제를 의심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횡령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업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경기문화재단,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협약

문화예술화관聯과 공동 연구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화관 연합회 경기지회는 최근 군포문화예술화관에서 ‘건강한 경기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내실 있는 협력사업 개발과 확산을 위해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 경기도 공연예술 성과축제 및 시각예술 성과전시회 공동 개최, 경기도 신진예술인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양 기관의 우수 문화예술 기획사업의 상호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예산배정 등에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예술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

이 2년간 추진한 ‘진심대면-소규모 예술프로젝트’ 사업을 양 기관이 1:1 예산 매칭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내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과 시군 문화화관이 화원으로 기업에 있는 한국문화예술화관연합회 경기지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기관과의 내실 있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개발과 구체적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기용 경기지회장은 “공공 공연장과 전시장을 보유한 경기지회 회원기관을 통해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발굴 육성하고 예술 활동 발표 기회와 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관내 고물상 및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형광조끼 및 리어카 등 고취도반사지 부착,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일산서부署, 형광조끼 등 고취도반사지 부착

폐지 수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관내 고물상 및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형광조끼 및 리어카, 자전거 등 고취도반사지 부착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형광조끼 배부 등 고취도반사지 부착은 야간·심야 시간대 운전자들이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고, 교통경찰이 안전물품을 배부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인 순찰을 통해 만나는 어르신들에게도 형광조끼를 배부하고 리어카, 자전거 등에 고취도 반사지 부착하는 등 올해 교통경찰 주요 추진 사항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상희 서장은 “야간에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형광조끼 등 안전 물품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겠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통안전교과도 강화해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평택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8곳 지정

현덕초·가사초·부용초 등

경기 평택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를 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한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대피장소는 현덕초

(체육관), 가사초(도서관), 부용초(체육관), 청담초(교사동), 복창초(체육관), 송신초(체육관), 지장초(체육관), 라온고(체육관) 등 8곳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방향표지판과 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대피장소 안내지도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적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평택/ 김필식기자 kimwb@jeonmae.co.kr

서산 부춘동, 주민생활혁신 확산지원사업 선정 ‘마을 정원교실’ 운영

주민 18명 참여 내달 9일까지 총8회
미니정원 가드닝·실내정원 꾸미기 등

충남 서산시 부춘동이 ‘마을 정원교실’ 강좌 운영에 나섰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추진된다.

이론 및 현장 교육으로 총 8회에 걸쳐 내달 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부춘동 등 인근 주민 18명이다.

“마을꽃” 아카데미 대표이자 원예심리상담사인 이윤희 강사가 미니정원 가드닝, 모듬별 실내정원 꾸미기 등 식물 이해부터 정원조성까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나눈다.

교육 후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한 정원 만들기, 전시회 등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남 서산시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마을 정원교실 개강식 기념 촬영.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오은정 부춘동장은 “교육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변화시키는 물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서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보령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체납액 20%·2800만원 징수목표

충남 보령시가 오는 6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 가구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체납요금은 2773가구에서 2만7102건으로 약 1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 수용가와 체납요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체납요금 일소를 위한 체납징수반 2개 팀(19명)을 구성 운영하고 휴일 징수반도 별도 편성해 전체 체납액의 20%인 2억 28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상하수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병행에 부채중인 수용가는 휴일 징수반을 활용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단수 차단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목표액의 40%인 9200만 원을 징수했고 내달까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은 결산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 수용가 중 38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점내역을 대조해 요금부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인목 수도과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단수, 재산 압류 등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해 징수 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강원 고성군, 화진포역 설치 타당성 조사 시동

현황조사·기술적·기능·여부 등 추진

강원 고성군은 동해북부선(제9공구) 철도연결 착공과 관련, 화진포역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하고 8월 말까지 조사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화진포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거진·현내 구, 도심 및 화진포 관광지와 연계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인근 관광관광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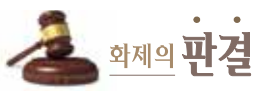
과 대륙횡단 철도 구축에 대비한 물류 및 관광개발 유인을 위한 지역개발을 비롯해 철도 접근성 문제 해결, 교통편의 제공 등을 검토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역 설치에 따른 현황조사, 기술적·기능·여부·현실성 있는 사업추진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지역 인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거장 위치 비교 분석, 경제성 조사와 사업비 추정 등 용역 과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 “부당해고”



법원의 판결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중양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 날 퇴사한 B씨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사전에 B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히

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인(B씨)이 원고(A사)에 사직 또는 합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퇴사한 날 A사 임원과 면담 자리에서 녹음된 과일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해고자이미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윽고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황재하기자

재판부 “해고사유·시기 통지 안해 근로기준법 따라 해고 효력 없다”

“사실무근 의혹제기 정치적 이용 방관하지 않을 것”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측

선관위에 조속한 조사 촉구

모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자서전 무상배포 의혹’과 관련,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일 선관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측은 “자방선거를 1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마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포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려 최 예비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비열한 위법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팩트 확인도 없이 SNS 등 인터넷상에 사실무근의 의혹제기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인터넷신문사 등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 또는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법행위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 배진숙기자 baesj@jeonmae.co.kr

경기 서해안 바닷물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서해안안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착수해 해수 30건과 갯벌 24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인구의 환자가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환자 257명의 월별 발생은 9월(32.3%), 8월(31.9%), 10월(16.0%), 7월(9.7%) 순이었다.

이 기간 경기도 환자는 45명(연평균 9명)으

로 8~10월 37명이 발생해 전체 82.2%가 집중됐다. 올해 전국 첫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달 21일부터 발열·오한 등의 증세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6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야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돼 발병한다.

특히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야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금해야 한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갑질 근절책 발표 4년…지자체 이행 저조

전남 신고센터 설치 고작 2곳뿐

실태조사도 없어…대구·강원 등 최저 “예방 시스템 부실·감독·점검 강화”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자체의 지침 이행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나 신고 실태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거나 관련 조제·신고센터를 만들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피해자 보호 및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수집한 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처리 현황 및 처리 절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세종·강원·전남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조제 제정·전담 기관 설치·실태조사·예방 교육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강원·전남은 직장 갑질 근절 종합대책 중 각각 3개씩 이행하지 않아 이행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에 꼽혔다. 조제 제정은 13곳이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조제·규칙·훈령 또는 조제·지침·매뉴얼을 함께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인천·울산·경기·전북·경남 6곳이었다.

전체 지자체에서 2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148

건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은 연평균 5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반면 대구·전남·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인천·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은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경남 2곳에 그쳤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제에서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데 중앙정부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얼마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비접촉 대면 면회할 수 있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박영수 어르신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기자

방역제한 풀리자…인천 밤거리 위험천만

차로 앉아 통행 방해·경찰관 폭행도 음주사건 잇따라…112 신고도 ‘부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인천지역 밤거리가 음주 관련 사건·사고로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 41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30대 A씨가 도로에 앉아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가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이 비슷한 신고는 8건이나 있

파됐다. 그는 아내와 다툼 뒤 술집에 화가 나서 도로로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6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단란주점에서는 60대 B씨가 영업시간 종료 후에 도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술에 취한 B씨를 가게 앞 화단에 앉히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중갑질사건으로 폭언을 들었다. B씨는 욕설을 내뱉다가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 1명이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었다. 다른 경찰관 1명도 앞구리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치했다.

이와함께 삼아 시간대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도 속출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C씨(28·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50·여)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10만400건으로 전년 동기(8만8888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주취자 관련 신고는 1800건에서 1817건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1187건에서 1527건으로 증가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사건·사고

출근길 지하철 여성 상대 상습 소매치기 검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서울경찰청은 복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여성 승객의 뒤에 서서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 등을 절취한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검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월 9호선 노량진역 동문출구 내에서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9호선 내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35건을 추출해 분석, 유력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잠복수사를 한 결과 이달 21일 용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또한 피의자가 검거 당일에도 3건의 절도 소매치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1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액이 375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임형진기자 limh@jeonmae.co.kr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직원 성추행 70대 검거

경기 포천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에 포천시 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점원 B씨에게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

이에 B씨가 점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달려들어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포 안에 설치돼 누르면 바로 112에 연결되는 ‘한달음’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 신영기자 shing@jeonmae.co.kr

대화가 주변 부동산 중개업 위반 15건 적발

전남도는 청년 임차인 밀집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 지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시 관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기재, 요율표·갱신된 공제증서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시 위반 등 15건을 적발했다.

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청년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익/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금연, 모두를 위한 약속!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금연,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1. 공공장고에서는 금연하기
2. 임산부의 영유아 앞 금연하기
3. 흡연시 건물 입구에서 10M이상 떨어지기
4. 흡연 후엔 주변 깨끗히 하기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를 금연입니다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나는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동 정



5월 중 직원 모임

고효열 충남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후 4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5월 중 직원 모임에 참석.



정세석회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은 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세석회에 참석.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은 2일 오전 11시 근로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



5월 중 직원 모임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는 2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5월 중 직원 모임에 참석.



시리리움 전시실 개관행사

김성관 충남 서천군수 권한대행은 2일 오후 3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열리는 시리리움 어린이체험 전시실 개관행사에 참석.



주인업무보고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2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인업무보고에 참석.



월례 조화·직장교육 실시

이경숙 강원 철원교육장은 2일 오전 10시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 조화 및 직장교육을 실시한다.



남촌동종합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

인천 남동구는 최근 남촌동종합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식(사진)을 가졌다.

새로 지어진 남촌동종합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54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기쁘며 인근 남촌여울리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 지역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 전개

전남 정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사랑의 광주리’ 나눔 행사(사진)를 가졌다.

1일 읍에 따르면 사랑의 광주리에는 기탁금으로 마련한 말반찬 3종(절반·장조림·고추나물)과 과일 등 담겼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 40가구 직접 방문, 안부를 묻고 말반찬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김현정 상동읍장은 “어려운 이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는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지역 복지사업에 참여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비나눔 발대식 개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서 부처님 대신 선물을 전해줘 정말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천년관음성지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최근 양양관내 6개 읍면을 돌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홀로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380명에게 상품권 10만 원과 쌀 8kg을 전달하며 온정을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 주최한 올해 자비나눔 발대식은 이날 무산사 앞 광장에서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과 무산복지재단 대표 수미스님, 김진하 군수 등이 참석해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양양군가족센터가 주관하고 낙산사가 후원한 이번 자비나눔은 발대식 후 금곡스님이 직접 자원봉사자 120명과 함께 직접 양양관내 6개 읍면 저소득가정 380명에게 각

낙산사·무산복지재단, 양양관내 380가구에 상품권·쌀 전달

“일상 회복 속 조금이나마 안정 되찾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최근 자비나눔 행사에서 낙산사 금곡 주지스님과 김진하(오른쪽) 양양군수가 물품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각 상품권 10만원과 쌀 8kg 등 5천만원 상당을 전하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소중한 선물을 전해 받은 서면 다문화가정 김재진씨는 “늘 이따면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 스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어제나 푸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

희들까지 안아 주는 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금곡스님은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설악무산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 속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비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모든 이웃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발원한다”고 축원했다.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금곡스님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과 지역 이동센터, 요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은 물론 맞춤형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쌀날과 추석에는 관내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고, 겨울에는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문화체험캠프를 열고 있다.

더욱이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지역사회 복지발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신홍사 회주 우승스님과 주지 자혜스님 등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산불과 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극복 성금을 비롯해 경로당 지원, 무료 급식소 운영, 장학금 지급,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어린이날 선물 전달, 자원봉사자 격려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있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포토 뉴스



전수암 일정스님, 보령시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충남 보령시 소재 전수암 일정스님은 최근 시를 방문해 한상범 인천행정국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신규 위촉

경기 김포시는 최근 시청 본관2층 상생실에서 제2기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포/ 방민수기자 bangms@jeonmae.co.kr



농협 서천군지부, 코로나19 극복 삼계탕 나눔 행사

N농협 충남 서천군지부는 최근 종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철원군, 장애인 단체에 복지서비스 통합차량 전달

강원 철원군은 최근 장애인 복지사업 활성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지적장애인협회에 9인승 통합차를 전달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금산군 자치행정과, 청렴 다짐 결의대회 실시

충남 금산군청 자치행정과는 최근 청렴행정을 생활화하고 청렴행정 구현을 다짐하고자 청렴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산/ 황선봉기자 m04570@jeonmae.co.kr



평택시 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이웃 물품 전달

경기 평택시 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덕동 관내 2개소 초등학교(충덕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에 이웃 실·내화물을 전달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춘천소방서, 용산2리 화재예방 인민미를 조성 행사

강원 춘천소방서는 최근 춘천시 신북읍 용산2리 마을회관에서 ‘화재예방 인민미를 조성·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n@jeonmae.co.kr



시천해양경찰서, 이웃돕기 쌀 49포 기탁

경남 시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시천시청을 방문해 개사식 행사에서 모인 쌀(백미 49포)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시천/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6·1 지방선거 누가 뉘냐

여주 국민의힘 시장·도의원 후보 ‘원팀’ 확정

이창우 여주시장 후보, 서광범·김규창 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경기 여주광역지역위원회 여주시장 후보로 이창우, 도의원 후보로는 서광범(제1선거구), 김규창(제2선거구)씨를 최근 확정 발표했다.

시장 후보 경선은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당원여론 50%, 일반인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창우 후보자가 전체 50.48%

% 득표로 경쟁 후보의 48.62%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후보는 순수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제1선거구(가남읍, 세종대원면, 점동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는 시의원 경력의 서광범 후보를 선출하고 제2선거구(대신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오학동, 중앙동)는 현 도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김규창 후보를 확정했다.

지역위원장인 김진교 의원은 각 후보자 공천 확정과 관련해 “6·1지방선거 관련 원팀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조만간 확정될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완벽한 원팀을 구성한다”면서 “자신 대선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지방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창우 후보는 이날 “최종후보로 확정된 것은 시민 여러분과



왼쪽부터 이창우, 서광범, 김규창 후보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로 이뤄진 결과”라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6·1지방선거에서 최종 승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3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김규창 후보는 “반드시 3선에 성공해 국민의힘과 여주시의 자존심을 살리고 향후 도 의정단에 진출해 도정과 지역 사회를 함께 아우르는 다산의원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광범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여주시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도 의회에 진출해서도 도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역할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의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주/ 김원일기자 Y1-kim@jeonmae.co.kr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 각계 감사패·지지 선언 잇따라

“미래 발전 견인해 달라” 격려

다들머민주당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예비후보 캠프에 각계의 감사장과 지지선언(사진)이 잇따르고 있다.

안양에서 활동하는 실버동화구원 봉사대 조일성 대표와 회원들은 최근 최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실버동화구원 교육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감사하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안양지역 사회적 협동조합 김순정 대표와 임원들이 최대호 캠프를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번 지방선거 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 예비후보는 안양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고 감사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최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임해환 태안군의원 예비후보 “군의원답게 최선”

보육·청년공약 등 발표

국민의 힘 충남 태안군의원 임해환(사진) 예비후보는 공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최근 태안읍 중앙로77번지 자신의 후보사무실에서 공약과 포부를 밝히며 개소식을 가졌다.

태안군가선거구(태안읍, 원북면, 이원면)로 출마하는 임 예비후보는 “태안군 기초의회의 이념 대립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겠지만 저는 ‘군의원은 군의원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며 “내 일거일처나 지인이라고 선택하지 말고 오로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소신껏 투표



태안/ 함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어르신 효도관광으로 ‘이웃사랑’ 실천

한정열씨, 사비 털어 세종시 연서면 생유리 노인회 어르신들.

지역의 한 독자가 아바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을 다녀와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 생유리(생전부락) 노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정열(세종시)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연서면 생유리 어르신들을 사정을 접하고 사비를 털

어 노인회 회원 22명을 모시고 서산 삼김포항의 바다를 둘러보고 태안 튼돌길 축제 장을 다녀왔다. 이에 주민들은 온정에 감사함을 전하자 한씨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효도관광은 물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진도군청 박수길씨,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글서예 부문 입선

전남 진도군청 박수길(지방서기관·사진)공무원이 최근 열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한글서예 부문에 이호우님의 ‘달밤’을 출품, 입선을 차지했다.

박 서기관은 (사)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한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글서예부문에 출품해 입선을 수상, 수상작품 전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서기관은 진도군청에서 40여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광개발과, 관광문화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장, 의신면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공로 연수 중에 있다.

공직생활 동안 틈틈이 서예를 공부해 공무원미술대전 입상, 전국추수박람회장대회



진도/ 김연일기자 kyi@jeonmae.co.kr

예술의 고장인 진도사람이라면 예술적인 취미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글서예를 시작했는데 국전에 입선을 하게돼 기쁘다”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욕자심의 마음으로 서예학습에 정진해 한글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고 예향진도의 맥을 이어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장 “노동자 권익신장·복지증진 위해 최선”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사진)은 최근 경기총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가에서 교묘하고 공격적인 노동 정책과 가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껏 싸워오며 이뤄낸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한순간에 후



이될 수 있는 곳”이라며 “도의회는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관련 복지정책이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김명기 황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개최

강원 황성군 국민의 힘 김명기 군수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사진)이 1일 열렸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과 농협중앙회 상무, 강원대학교 농업자원 경제학과 겸임교수 등을 영접하면서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 후보는 “1조원 시대 황성” 등이 포함된 ‘통합 그리고 부자농촌, 황성군민 행복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다.

황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꿀벌 실종 막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데스크칼럼

최 승 필

지방부국장



재난이었기 때문에 그 보호는 엄격한 법에 의해 규정됐는데 17세기 독일의 라우엔부르크의 법률에서는 꿀벌을 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벌이 한개밖에 많이 죽으면 역병이나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고 죽음과 불사, 근면, 용변 등과 결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벌은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전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의 ‘수분(受粉)’에 있어서 벌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분’은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머리에 붙이는 것으로 식물의 번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결국,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농작물과 음식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꿀벌의 폐사 및 실종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겨울에 폐사한 꿀벌이 78억 마리에 달하고 사체도 없이 벌통이 텅빈 사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월동 봉군 소벌과해 전국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기준으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벌통 288만7277개 중 41만3346개(15.38%)에서 집단 꿀벌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15%가 넘는 꿀벌이 집단 폐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꿀벌이 월동을 하면 5~10% 정도로 폐사가 발행하는데, 올해는 유독 10%가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 등 남부지방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벌통 24만5084개 중 10만5884개(43.21%)의 벌통에서 집단 폐사했고 광주는 4만3000개 중 1만6668개(37.72%), 전북은 28만6616개 중 9만110개(31.4%)가 폐사하는 등 피해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는 전남 지역에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피해가 심한 농가는 봉군이 3분의 1 밖에 안 남았고 3분의 2 정도는 벌통이 텅빈 비어 있어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33만7047개 중 4만5865개(13.64%), 경북에서는 59

만9000개 중 7만5729개(12.64%)의 벌통이 피해를 입었고, 부산(18.37%)과 대구(20.53%)에서도 높은 폐사율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충남은 8.23%, 경기도는 1.62%, 충북은 0.29%로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폐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폐사와 실종의 이유로 해충인 진드기(응애) 피해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겨울철 일부 지역에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봄인 초·작년에 벌통에서 나온 꿀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수은주에 적응하지 못해 벌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얼어 죽었다는 분석이다. 온난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해충인 꿀벌 응애를 없애기 위해 뿌렸던 살충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응애가 번성하고, 양봉농가는 응애 퇴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사용하는 등 오작동한 약순환이 이어지면서 꿀벌의 번식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꿀벌의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꿀벌 집단 폐사 및 실종이 보고됐을 당시 꽃꿀과 꽃가루에 남아 있는 수백가지의 농약 독성 성분이 꿀벌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해 결국 서로 의지해 온 꿀벌 사회 전체가 무너졌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과일과 채소, 씨앗, 식물성 기름 등 ‘수분’에 의존하는 식품이 최근 50년간 3배로 증가하면서 벌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또 벌이 수백만 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특히 벌은 꽃가루 매개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유지시켜, 생물종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와 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1734년 5월 20일 양봉 산구자인 Anton Jansa의 출생일을 기념해 슬로베니아의 제1인으로 2017년 12월 UN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벌의 실종’을 분명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은다. ‘벌의 실종’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 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지속적 이뤄져야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날 24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키이우에서 다음 날 폴란드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권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이어 독일·영국 등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추정 예산안 편성 시 382억 유로(한화, 약 52조7000억원)를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 정부는 군수업체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마르틴 장갑차 100대를 수출하기 위해 낸 허가 신청에 대해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공 장갑차를 보낸다고 했다. 더 선은 최근 영국이 초고속 미사일 스타 스트릭을 발사하는 대공 장갑차 스토퍼 몇 대와 병력 수송차량 12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인들에 직접 보여줄 기회였다”며 “이렇게 직접 만나 자제해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계속 잔혹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인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키이우 길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봤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키이우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최고위급 장관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힘을 실어 주면서 무기 지원까지 약속했다. “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나한테 긴 정원용 호스가 있다고 집시다.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옆집 사람에게 ‘이 호스 사느라고 15달러가 들었으니 내게 15달러를 내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15달러를 받기보다는 불이 꺼진 뒤에 호스를 돌려받으려고 할 겁니다” 1940년 1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창 논란을 빚고 있던 무기 대여법에 관해 이 같은 비유를 들었다. 프랭스마저 허망하게 무너지고 자유 진영에서 홀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맞서던 영국도 비참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때였다. ‘무기대여법’이 제정되면 ‘국고’가 비축한 영국이 계속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미국이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게 됐

다. 며칠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변담화에서 미국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나치 독일에 맞서는 영국을 돕기 위해 “민주주의의 방기장”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국을 도와야만 나중에 미국이 직접 싸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1889년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구 매 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구매자 책임하에 운송한다는 조건으로 교전 당시국, 즉 영국과 프랑스에 전장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립법이 개정됐다. 무기대여법 제정 움직임은 이처럼 강한 반전 여론과 이로 인한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던 상황에서 본격화했다. 이처럼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무기 대여법은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해 1941년 3월 11일 법률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와 전쟁물자가 막대한 규모로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 소련, 중국 등에 ‘대여’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비참 끝으로 내뿜었던 연합국은 일기를 회복했고, 파시스트 국가들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참각 이후 미국의 금수조치로 고립됐던 일본은 당시 공식적으로는 ‘미친국’이 아니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속적인 무기 지원으로 대외 팽창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진주만 공습’이라는 무리수를 던지게 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각 일본제국에 전쟁을 선포했고, 곧이어 일본의 동맹인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했다.

이제 미국이 함께 싸우는 동맹국을 위해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데 걸림돌은 완전히 사라졌다. 1945년 9월 공식 종료된 무기대여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에 지원한 물품은 모두 500억 달러에다가 넘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7,000억 달러(한화, 약 880조원)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방기장’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120% 달성했다. 무기대여 프로그램은 ‘악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 일부 유상 무기대여 프로그램과 미실 플랜의 집행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것은 ‘달러가 가족통화’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의 방기장이 되는 것은 미국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당사와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은 강대국끼리 전쟁으로 곧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미국의 행보는 80여년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레이트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80 / 홈페이지 제보 jeob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특고 등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징계권 폐지 1년 후 지금은

독자투고

정 도 진

강원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민법 제915조에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부모가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벌을 합법화한 것인데 이 조항이 아동학대를 부추킨다는 여론이 높아 63년민인 2021년에 징계권 조항이 완전 폐지가 됐다.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난건만 여전히 약 70%의 부모들이 징계권이 폐지된 것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 징계권이 민법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른들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발 우려 가정이 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및 상담교육도 받았지만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해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거짓말한다고,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다고, 버릇없이 말대꾸한다고, 늦게 일어 난다고, 외박을 자주 한다고, 씻지 않는다는 등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효자손, 회초리,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체벌을 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하는 체벌은 강도가 세고 물리적 상처를 수반하여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문제가 많은데 보고만 있으려는 말이나 그림 어떻게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는지 알려 달

라”고 항변하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 2명을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병을 2번이나 겪어봤는데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도 아이들은 다 스스로 잘 성장한다. 괜한 부모들의 걱정이고 애만 스스로 달달 부는 것이다. 때문이라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인 것이다.

이제 징계권은 완전히 폐지되어 사람의 매도 없으며 뜻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더더욱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징계권을 핑계로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 아이를 징계할 수 없다.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과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할 하나의 인격체인 것이다. 방정환 선생이 동지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라 주시오”. “어린이를 잘 부탁합니다” 평생 어린이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할 하지 않을까.

채널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HLH www.hnedu.co.kr
전화 02-323-6933 팩스 02-323-9990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볼프 비어만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압도적인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누리 교수의 정치사회 비평집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김 누리 교 수 의 한 국 사 회 탐 험 기

화제의 명강의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31회, 132회, 147회(특별강연)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70회
TVN <미래수업>
2화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한국 사회 탐험기

김누리 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정치,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김누리 저
신국면형판
320쪽
값 16,500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내일의 가능성에 닿다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요?

닿지 못하는 곳에 닿게 하고
즐거움과 편리함을 함께하는
멋진 친구는 아닐까요?

이제 꿈꾸던 내일이
눈 앞의 현실이 되는 세상에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봇틱스 기술로
내일의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일상으로 실현시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틱스 비전을 만나 보세요